

군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 집중

주요사업별 필요성 등 논리강화·삭감 우려사업 사업증액 위한 협조 요청

군산시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19년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7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및 지원 요청활동에 적극 나섰다.

2019년 군산시 국가예산은 지난해 8,864억 원보다 388억 원 증액된 9,252억 원이 확보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이번 강 시장의 국회 방문은 예산 심사 전 주요사업에 대한 정치권 협조를 구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 강 시장은 지역 출신 김관영 의원과 박주현 의원을 만나 군산시 국가예산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후 국회단체의 대응전략을 함께 논의했으며 주요 사업별 필요성 등의 논리 강화와 삭감 우려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과소 미 반영된 사업 증액을 위한 사전 협조도 요청했다.

이번 기획재정부 확정된 국가예산으로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군장산 입입철도, 비응항 정문도 개신사업 등 SOC 사업과 수상형 태양광 종합발전센터 구축을 비롯한 R&D사업, 신규 업으로는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 부품 고도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지난 17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및 지원 요청활동에 적극 나섰다.

특히 미래 새만금과 연계된 철도사업으로 군장산 입입철도 사업이 올해 78억 원에서 내년도 25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익산·대야 복선전철 사업도 올해 145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관광사업으로는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국가예산 67억 원이 확보되면서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이후 연평균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고군산도도가 향후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해 서해안권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사업에 21억 원이 신규 반영돼 총사업비 450억 원의 혁신타운 조성 시 사회적 경제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상용차산업의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에 45억, 수상형 태양광 종합발전센터 구축 예산 20억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평가기술 개발 10억이 반영되는 등 향후 새만금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 관련 인프라가 집중화 될 것으로 예상돼 군산시가 미래산업 선도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회 예산 심의를 최종적으로 남기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의 다양한 협력체계 및 공조를 통해 미반영 예산 추가 편성 등 더욱 많은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미래산업 유치 필요 촉구

군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관 및 단체들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주도의 미래산업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 김경규 군산시의회 의장 이승우 군산아항운동본부장, 박병선 군산대 총장, 채정룡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 등 14개 기관단체장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 발언에 나선 김동수 회장은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과 올해 5월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로 1만6천여명에 이르는 실직자가 발생하고 지역경제는 접점 침몰해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기관 및 단체장들은 "정부주도



의 군산경제 회생을 위해 미래 산업에 적극 투자 및 유치 계획을 즉각 수립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관단체장들은 정부는 군산경제 회생을 위해 미래산업투자유치계획을 즉각 수립 시행하고 미래형 자동차 특구 지정과 한국자립 군산공차 처분과 재 활용 방안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행복학습센터 27일까지 교육생 모집

평생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한 군산시는 시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유류공간을 활용해 학습공간을 창출하는 행복학습센터 교육생을 오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군산시의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신청을 받아 총 15개소의 행복학습센터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수송동의 신도삼지역, 월명동의 원도삼지역, 옥산면의 농촌지역 및 오식도동의 산업단지 지역에 행복학습센터가 개설돼 시민들에게 학습을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하랑유치원, 시간여행축제 개막행사 참가 '화제'

40여명의 유아들 독립운동가 복장·최연소 참가팀

올해로 6회 행사를 맞이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지역주민들과 외지에서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에 걸쳐 시민참여형 행사로 탈바꿈한 이번 축제는 시민참여 공연과 프리마켓 참여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군산을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넷 추석을 말한다. 2018. 군산 시간여행축제 개막행사 퍼레이드에 하랑유치원 40여명의 유아들이 독립운동가 복장을 하고 참가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랑유치원은 '군산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알아가기'라는 연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시민 공모에 지원, 총 64팀 중에 최연소 참가팀으로 뽑혔다.

하랑유치원 안장자 이사장은 "유아가부터 지역사회와 우리나



라의 전통문화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데 가장 필요한 교육과정의 일부"이라며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발전, 유지해 온 역사와 전통문화를 알아봄으로써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이사장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원생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전국 최고의 축제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특별교부세 17억원 추가 확보

익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익산시는 상반기 48억원 확보에 이어 하반기 17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는 △익산 제2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5억) △마천로 미개설 구간 도로개설(5억) △용안면 난포삼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7억) 등에 쓰이게 된다.

시는 지난 8월말 정현을 익산시장이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이춘석, 조배숙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익산 제2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된 산단의 기반시설인 노후 인도를 정비, 근로자 통행의 불편 및 환경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하림 피오봉사단 환경사랑 실천

(주)하림의 '피오봉사단'이 계룡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업사이클링과 쓰레기 줍기 등을 진행하며 환경사랑을 실천했다.

조종효교 이상 자녀가 포함된 소비자 가족과 임직원으로 구성된 하림 피오봉사단 5기 50명은 15일, 충남 공주시 계룡산국립공원을 방문했다. 자연생태계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계룡산자연사박물관에서 '공룡의 세계, 생명의 땅과 지구, 자연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생태교육을 받고 환경실천연합회와 함께 폐자재를 활용해 장난감을 만드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체험도 했다.

생태교육과 체험활동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은 뒤에는 계룡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하림 피오봉사단 5기 이장원씨는 "아이들과 함께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장난감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해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추석맞이 민생안정 종합대책

4개 분야로 나눠 시민불편 최소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

익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재해대책반, 교통종합대책반, 의료진료대책반 등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한 추석맞이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시는 △즐거움 명절 △안전한 명절 △정갈하고 훈훈한 명절 △연결한 공직가장 확립 등 4개 분야로 나눠 종합대책을 추진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먼저 생활경제 안정대책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분야별 추석명절 물가안정 대책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농·수·축산물 수급상황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소비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을 격려하기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내고장 상품 장보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시장이나 터미널 등 연휴기간 인파가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교통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혼잡구간의 교통소통 지도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의료를 지정·운영하여 연휴 기간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한편, 상하수도 대책반을 편성하여 단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